

운곡서원雲谷書院 유연정悠然亭 보존사업 착공

권오신 좌운공파회장 시·도비 1억 8천만 원 예산 확보 사업 추진



운곡서원 유연정의 만추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시, 도비 예산 1억 8천만 원을 들여 운곡서원(雲谷書院)과 유연정(悠然亭,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345호) 보존 작업을 올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기로 했다.

먼저 올 상반기엔 예산 7천만 원을 들여 유연정 보수작업을 벌인다.

빗물로 기둥과 마루가 썩는 것을 막기 위해 동남쪽 담장 벽을 지금 보다 낮춰 빗물이 담장을 맞고 정자 내벽으로 튀는 것을 방지하는 등 내부 보수작업과 유연정 용추를 가로막는 수목을 정비, 장마철의 습도로 고건물 목재가 썩는 것을 막기로 했다.

하반기엔 예산 8천만 원을 들여 유연정 기둥과 천정 서까래 등 목재를 파고드는 생개

미 방제 작업을 벌인다. 목조문화재의 보존에 치명적인 해를 입히는 생개미 방제 작업은 유연정(悠然亭) 크기의 둠을 짓고 훈증으로 해충을 없애는 독특한 작업 방법이다.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345호로 지정된 운곡서원(雲谷書院) 유연정은 순조(純祖) 11년(1811, 신미辛未) 시조 태사공(太師公)과 충민공(忠愍公), 귀봉공(龜峯公)을 추모하기 위해 후손들이 창건했다.

운곡서원(雲谷書院)을 떠받드는 정자 건물이자 조선 후기 시대의 건축미(建築美)를 대표하는 고건축물(古建築物)로 역사적 가치를 높게 지녔다.

용추(龍湫)의 빼어난 경관을 손상하지 않고 정자를 지었다. 정자 이름은 도연명(陶淵明, 365~427)의 시(詩) “음주(飲

酒):〈채국동리하採菊東籬下 동쪽 울타리에서 국화를 꺾어 들고 유연견남산悠然見南山을 바라보네.〉에서 가져왔다.

정면 3칸과 옆면 두 칸 규모에 홀처마 여덟 팔(八)자 모양 팔작지붕을 얹은 형태로 조선시대 정자로서는 보기 드물게 반칸 크기의 마루를 두고 오른쪽 칸을 온돌방으로 꾸며 여름철만 이용했던 정자(亭子)의 종래 관념을 깨고 사계절(四季節) 이용으로 효율(效率)성을 한껏 끌어 올렸다.

정자(亭子)를 떠받드는 도리 기둥엔 초익공(初翼工, 새의 날개 모양)을 얹고 대청은 서까래가 보이지 않도록 우물정자(井)천장을 얹었다.

천정 양쪽에는 반원형(강다리)의 넓은 나무 판재를 끼운 특이한 건축 양식이어서

우리나라 고고학계(考古學界)가 연구 대상에 올려놓은 조선 후기의 빼어난 미를 자랑하는 고건축물(古建築物)이다.

특히 천정엔 피고 지는 연(蓮)꽃을 띄워 송(宋)나라 유학자 주돈이(周敦頤, 1017~1073/ 북송 시대의 유교 사상가였던 주자. 유학의 형이상학적 사유는 주돈이에서 시작되었다고 함)의 정신이었던 광풍제월정(光風霽月亭, 비가 갠 뒤의 시원스런 바람과 맑은 달 같은 깨끗한 인품)과 애련설(愛蓮說)까지 품었다.

또 3월엔 운곡서원(雲谷書院) 은행나무(수령 250년, 경주시 보호수) 보호 작업과 운곡서원(雲谷書院)을 둘러싼 산림 정비 작업을 5월부터 벌인다.

운곡서원 운영위원장 권혁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내정



권칠승(북야공파, 37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화성병)이 20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내정됐다. 권칠승 내정자는 1965년생으로 대구 경북고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을 지냈고 경기도의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을 역임했다. 고향은 경북 영천이다.

편집국장 권행완

1月 임원 회비 납부 내역

<임원 선입 '20.12.31자'
권준식 부회장(정현공계 회장)

부회장

권성용 상임위원(부산)	1,000,000
권영열(화천기공(주) 회장)	1,000,000
권홍사(반도건설(주) 회장)	1,000,000
권혁찬(보험설계사)	1,000,000

이사

권식원(양주)	300,000
---------	---------

총무 위원

권동원(대전)	200,000
권박원(대전)	200,000
권기호(안동, 북야공파)	200,000
권기호(안동, 정조공파)	200,000
권병도(대구)	200,000
권혁원(경기수원)	200,000

총 : 5,500,000원

※ 순서는 납부 순입니다.

안동권씨대종회



존경하는 100만 족친여러분!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안동권씨 대종회 회장 권해옥 외 임직원 일동